

오피니언

다산포럼

허욱



“TV로 인터넷이 흐른다” 인터넷 망을 통해 TV방송을 전달하는 IPTV에 대한 시범사업자의 설명자료 제목이다.

텔레TV 활성화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유추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도 구성했다.

IPTV와 판 생각

부와 방송위원회의 방송, 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통합위원회(안)를 기구개편 다수의견으로 제시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선을 앞두고 야당이 방송 통신의 규제 및 진흥정책을 관장하는 통합 기구개편안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도입을 통해 새로운 성장사업의 돌파구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필자가 IPTV의 도입을 바라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몇 차례 클릭으로 스스로 촬영한 동영상 상을 인터넷에 올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전세계 인터넷문화를 바꾼 것이 유튜브였다.

국내에서도 UCC, 즉 인터넷을 통한 사용자제작 콘텐츠가 주목 받고 있는 최근 추세는 콘텐츠 제작 유통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미디어의 일방향을 극복하는 좋은 대안이라 여겨진다.

〈LIBRA컨설팅 대표·다산연구소 제목〉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상생경영’ 외면하는 기아차 광주공장

기아차 광주공장 협력업체들이 기아차의 잇따른 파업과 납품단가 인하라는 이중고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현재 기아차 그룹은 지난 4월 대대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프로젝트를 발표 한 바 있다. 그럼에도, 그 이후에 납품단가 인하와 같은 불공정 행위는 계속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율하락이나 원자재가 상승 등 대외 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약화는 대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게 기업경영의 정도다.

지 않으면서 협력업체만 ‘고통분담’을 강요한다면 아예 공장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 ‘협력업체는 굶어 죽고, 광주공장 직원들의 연봉은 5천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 무슨 상생이 되겠는가’라는 한 협력업체 사장의 하소연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물론 모기업이 어렵다면 협력업체도 어느 정도의 고통분담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파업은 협력업체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 없이는 모기업의 성장도 불가능하다. 많은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윈-윈 경영’에 심혈을 쏟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공공 얼어붙은 취업시장... 대책 서둘러라

신규 취업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재취업 시장도 공공 얼어붙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평균 비경제활동인구가 2000년 이후 최대인 1천487만3천명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취업난은 고급인력의 남비를 초래하고 국가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고용이 활발히 이뤄져야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신규 취업 뿐 아니라 한번 직장을 잃으면 다시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등 전체적인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으로 내년 신규 채용규모를 조사한 결과, 4만9천602명으로 올해 채용 예상규모보다 5.1% 줄었고 채용계획이 없다는 기업도 13.7%에 달했다.

취업난은 고급인력의 남비를 초래하고 국가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고용이 활발히 이뤄져야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실업자가 1천400만명을 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일이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투자를 유인해 내는 것이 핵심이다.

NGO 칼럼

김남수



최근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포럼’이 주최한 ‘한국근현대사 대안교과서 심포지엄’의 내용이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역사교과서를 만들고, 중국이 고구려가 중국 역사라는 내용의 교과서를 만들면서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이유는 바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고, 북한을 중국영토로 만들려는 장기계획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한국 국민들은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고 대응했던 것이다.

‘교과서포럼’ 역사왜곡이 가져올 위험들

두한 정권은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을 승계한 정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뉴라이트의 등장으로 시민운동이 분화되면서 다양한 담론들이 형성된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5·18에 군사독재에 대한 내용이 빠진 채 지역의 소외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광주시민들은 자기지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그냥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지역소외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우려해야 할 지점은 이러한 논리가 이념과 사상을 다른 일반적 정론자가 아닌 교육용 교과서에 다루어진다. 만약 이들 교과서가 미래의 새싹들에게 교육되고, 청소년들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후세의 역사인식은 어떻게 될까?

〈광주·전남개혁연대 집행위원장〉

중부세 거부자 정부가 강력 처벌 해야

정부가 부동산값 폭등을 막고자 도입한 제도가 종합부동산세다. 이 제도가 12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최근 납부거부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납세거부 운동은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불법 행위이다. 한 사람이 수십채, 수백채씩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평평거리며 사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정현경·목포시 연산동



동물계의 미인 ‘레서팬더’



혹시 이 동물을 본 독자가 있을까. 너구리과의 일종이지만 몸 전체는 밝은 주황색 털로 덮였고 눈 주위와 코는 팬더처럼 희며 대나무 잎을 좋아하는 동물.

세계적인 희귀종인 레서팬더(Lesser Panda)다. 히말라야 남서쪽 산맥과 중국 남부 등 해발 2천200m~4천800m의 산림지대에서 서식하는데, 몸길이 약 60cm·몸무게 3~6kg에 수명이 8~10년에 불과하고 번식률이 낮아 멸종 위기 동물로 보호받고 있다.

학교·음식점·구내식당 등 음식물 잔반 없애기 운동 시급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의례히 구내 식당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늘 음식이 남는다는 것이다. 특히 직원들이 식사가 넘쳐도록 푸판 뒤 먹지도 않고 남기는 음식이 너무 많다.

너구리과인데 주로 대나무·과일을 먹는 초식성이라는 점도 특이하다. 하지만 가끔 작은 포유동물이나 양서류를 잡아먹기도 해 완전한 초식성 동물은 아니다.

대부분의 너구리과 동물들이 조금은 거리감을 주는 데 비해 이 녀석은 코알라처럼 그냥 포근히 안아도 될 것 같다는 착각을 일으킨다. 하지만 그랬다간 큰 코 다친다. 하니, 혹시 이 동물을 보고 싶다는 자녀 때문에 우치 동물원을 오는 시민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hlvnat@hanmail.net

“사람이 몇 명인데 얼마 정도를 시키면 될까요?”라고 물어보면 이 경우 역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시켜보면 대부분 양이 넘치고야 만다. 아내가 한민씩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가서 급식을 하고 오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의 잔반 이야기이다.

이처럼 학교, 업체, 식당, 그리고 가정에 이르기까지 잔반이 많이 남아돌아 쓰레기로 버려지면 엄청난 처리비용과 환경오염을 부를 수밖에 없다. 다시한번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학교, 가정에서 잔반 없애기 생활화가 될 때까지 범시민 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

▲이혁섭·광주시 광산구 양산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無等鼓

‘피겨요정’ 김연아(16·군포 수리고)가 지난달 19일 열린 2006-20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4차 대회에서 세계 정상에 올랐다.

당시 연기에 맞춘 선율이 ‘종달새의 비상(The Lark Ascending)’.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때로는 합창체, 또 부드럽고 우아하게 은반을 누비는 김연아는 한 마리 새였다.

김연아가 ‘피겨여왕’으로 등극한 것에 대해 언론들은 모두 작전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일반인들은 ‘피겨에 무슨 작전?’ 하며 의아해 했지만 박 분선 코치는 체력이 약한 김연아의 단점 보완을 위해 고난도 기술을 연기 초반에 모두 소화하도록 배려했다.

이번 15회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이 유력한 ‘마린보이’ 박태환(17·경기고)의 4일 수영 자유형 200m 첫등도 치밀한 작전의 결과물이었다.

이별인 중국의 장린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고 지시했다. 장린이 초반 스피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100m 지점까지 근소한 차이로 따라잡고 이후부터는 지구력이 좋은 박태환에게 역전승부를 결정토록 패거렸다.

경기종목에서는 더욱 다양한 작전이 구사된다. 작전하나에 승패가 좌우되기도 하는데 야구의 김재박 감독은 질수만 있으면 모두 작전을 거는 스타일 때문에 ‘그라운드스 여우’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그 작전의 근간은 변트다. 하지만 이번 아시안게임 대만전에서 한국은 4번의 변트 실패로 무릎을 꿇었고 사회적 야구선수들이 주축인 일본전에서도 약한 김연아의 단점 보완을 위해 고난도 기술을 연기 초반에 모두 소화하도록 배려했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믿음의 야구’로 세계최강 미국과 일본을 격파한 적도 있는데 다른 대안이 없었을까. ‘작전야구’의 ‘도하 참변’은 너무 아픈 수도다. /기현호 체육·여론대체부장 khh@

작전의 ‘참변’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